

인류화합을 향해



“새로운 통일의 정신은 인류를 보듬고....”



화합을 향해?

바수데바 쿠두바감은 고대 인도인에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한 가족이다.

문명이 동트고 있을 때 이미 존재했던 인류화합의 이상은 한번도 그 실현에 접근한 적은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인류화합에 근접하면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욱 더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화합의 필요성은 어느때보다 중대하고, 화합이 필연적이며 종종 위협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세계

우리는 세계화, 지구화를 이야기 하면서 동시에 획일화의 위험을 놓고 우려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이상으로 민주주의를 말하고, 모든 나라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향해 나가야만 한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이 민주주의 모델은 몇몇 국가들이 다른 나라에 강요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지구의 한정자원이 고갈되고 있음을 주지하고 있으며 이 공통의 과제를 다루기에는 개별 민족국가 형태가 더 이상 적절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초국가적 형태에 대한 개념 그 자체에는 민족국가의 통치권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있으며, 이 생각은 수십년간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랜기간- 이어진 투쟁과 고통 속에서 상당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문화말살

오늘날의 세계는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진보가 우리 지구를 아주 작게 만들었으며 뉴스는 고속정보망을 통해 지구 구석구석의 거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촌문화가 지구의 다양한 문화를 말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생활습관의 획일화와 지식의 획일화를 향한 질주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제분야

경제분야에서 자유경쟁이 몇몇 국가에만 적합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강요되고 소비문화를 모든 곳에 전파하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주 이야기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컴퓨터와 전세계 인구의 4분의 1 만을 위한 식량;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일까요?

과학

19 세기에 지식인들은 과학의 진보가 인류의 통합을 이끄는 주요소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의 것이며 그 속성상 국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이 악용될 수 있으며 악용되고 있으며 파괴의 수단 점점 더 악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만병통치약으로의 과학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체할 것이 있을까요?

가장 큰 장애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화와 평화로운 삶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에고이즘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친 문명화이후에도 종교적 설교나 도덕적 가르침이 에고가 그것을 넘어가도록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애를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진정한 화합의 필요성

따라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통합의 한 지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구의 산적한 문제를 정확히 풀어나가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으며, 예상하고 있는 화합이 인간의 내적 깊은 필요와 열망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해방속에서 인간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이 화합은 기계적 수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사이의 진정한

화합을 인식하지 않는 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회적 기계적 장치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목표가 모든 인류를 좀 더 공평하고, 좀 더 빛을 향한, 좀 더 고귀한 삶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 화합은 더 이상 호감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초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화합이 밀고나가는 방향을 이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인간은 변성적 존재 transitional being 이라고 스리 오로빈도는 제 1 차세계 대전이 끝난 직후 말했습니다. 진화는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은 초월될 것입니다. 스리 오로빈도는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를 내다보신 것 뿐만 아니라 인간 진화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도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스럽고 불가해한 과정에 수동적인 방관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의 진화에 협력하여 얽히고 설킨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내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를 위해서는 그 과정을 뒤집어야만 한다고 스리 오로빈도는 말씀하셨습니다. 외적 수단을 이용하는 대신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인간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면 외적 환경의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화합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속에 우리가 모두 하나인 숨겨진 정신 secret Spirit, 신성한 실재 a divine Reality 가 있음을 혁신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 이것을 정신적으로 깨닫는 것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속에서 발견하고 이 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합의 비밀은 그 속에 있다고 스리 오로빈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애의 비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영혼에 의한 것을 떠나서 화합은 없습니다. 영혼속에서 in the soul 영혼에 의하지 by the soul 앎은 진정한 형제애는 없습니다. 우리가 에고가 아니라 영혼에 의해서 살아갈 때에만 live from the soul 진정한 화합이 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새로운 의식과 관련하여

‘인류애의 영적 시대 spiritual age of humanity’ 는 이 지상에서 사유하는 의식 thinking mind 출현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변성을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년간 마음 the mind 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애를 향해 열린 새 시대, ‘초정신 시대 supra-mental age’에는 영혼 the soul 이 모든 삶과 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인간 진화에서의 새로운 단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스리 오로빈도가 말했듯이 마음의 이중성, 우유부단함, 한계와 에고에서 오는 탐욕과 무지가 더 이상 존쟁하지 않는, 마음보다

높은 곳에 있는 새로운 의식, 참 의식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구를 고통스럽게 찢고 있는 모든 대변동과 혼돈은 이 진화적 위기국면의 외적 징후입니다. 이 새로운 의식은 대기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관계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안에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전체 본성을 변성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성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넓고 원대한 의미에서 오로빌은 인류화합에 바칩니다. 모든 분을 초대합니다.